

진격의 광주...조호르 꺾고 ACLE 3연승 질주

아사니 경기 시작 6분만에 2골·수문장 김경민 호수비에 3-1 승 11월 5일 고베와의 원정 경기·K리그1 경기서 연승 잇기 나서

광주FC에 광주가 좋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 22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조호르 다를 탁집(말레이시아)과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스테이지 3차전에서 아사니의 멀티골을 앞세워 3-1 승리를 거뒀다. ACLE 3연승이다.

장단 후 처음 나선 '아시아 무대'에서 놀라운 질주를 선보이고 있는 광주는 이번 승리로 승점 9를 만들면서, 동아시아 그룹 12개 팀 중 순위 가장 높은 곳을 지켰다.

아사니가 이번에도 해결사로 역할을 했다. 아사니는 9월 17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1차전에서 헤트트릭을 장식하면서 7-3 대승을 이끌었다.

지난 1일 펼쳐진 가와사키 프론타레와의 원정경기에서도 아사니는 골을 더했다. 아사니는 전반 21분 김진호가 얻은 페널티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서 대회 4호골을 장식했다.

아사니는 3차전에서는 6분 만에 두 골을 더했다. 전반 3분 오후성이 왼쪽에서 넘긴 공을 페널티

지역에서 잡은 아사니가 왼발로 환상적인 포물선을 그리면서 골대를 갈랐다.

두 번째 골이 나오는데 3분이 걸렸다.

이번에는 아사니가 직접 골 상황을 만들었다. 아사니는 중원에서 압박에 나서 공을 뺏은 뒤 골키퍼를 마주한 채 침착하게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8분 광주가 골을 허용했다.

조호르 페로즈바하루딘이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광주 골대 왼쪽을 뚫었다.

전반 33분 코너킥 상황에서 광주도 골망은 흔들었다. 신창무의 슈팅이 골대를 갈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이후 '수문장' 김경민의 호수비가 이어졌다.

특히 전반 종료 직전 상대 머리 맞고 골대로 빨려 들어간 공을 편향하면서 실점을 막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정호연이 오른발 슈팅을 날리면서 공세의 시작을 알렸다.

두 팀의 팽팽한 승부가 계속되던 후반 43분 승부의 추를 기울이는 쐐기골이 나왔다.

아사니가 오른쪽에서 상대를 따돌리고 크로스를

올렸고, 허슬이 낮게 깔린 공을 향해 몸을 날려 헤더로 연결했다.

공이 조호르 수비수 박준형 발에 맞은 뒤 골대로 들어가면서 광주의 3번째 골이 기록됐다.

광주는 5분의 추가시간까지 실점 없이 지키면서 3-1 승리를 완성했다.

원정 같은 홈경기에서, 단점이 아닌 장점에 집중해서 만든 광주의 승리다.

광주는 이번 홈경기를 그라운드 사정으로 인해 광주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치렀다. 25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낯선 곳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은 있었지만 좋은 그라운드에서 공세를 펼치면서 3연승 질주에 성공했다.

광주는 오는 11월 5일 비셀 고베와의 원정 경기를 통해서 4연승을 노리게 된다.

분위기를 이어 K리그1 '잔류 확정'에도 나선다. 올 시즌 14승 2무 18패의 전적으로 승점 44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는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1 35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11월 2일 오후 4시 30분에는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가 예정됐다.

최하위 인천(승점 32), 강등권인 10위에 있는 대전(승점 38)과의 승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아사니가 지난 22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조호르 다를 탁집(말레이시아)과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스테이지 3차전에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선방에 막힌' 이강인...PSG, 챔스리그 에인트호번과 무승부

즈베즈다는 모나코에 1-5 완패

이강인이 선발 출격한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에서 네덜란드의 PSV 에인트호번과 승점 1을 나눠 가졌다.

PSG는 23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4-2025 UCL 리그 페이즈 3차전 홈경기에서 에인트호번과 1-1로 비겼다.

지난달 시작된 리그 페이즈에서 지로나(스페인)를 꺾고 아스널(잉글랜드)엔 졌던 PSG는 2경기 연속 무승(1무 1패) 속에 승점 4를 쌓았다.

에인트호번은 리그 페이즈 2무 1패(승점 2)를 기록했다.

이번 UCL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36개 팀이 추

점으로 정해진 대진에 따라 8경기씩을 치러 1위부터 36위까지 순위를 가리는 리그 페이즈가 먼저 열린다.

리그 페이즈 1~8위 팀이 16강에 직행하고, 9~24위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16강행을 노린다.

이강인은 이날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뎀벨레와 PSG의 공격진을 이휘 선발 출전, 후반 23분까지 뮌 마르코 아센시오로 교체됐다.

20일 스트라스부르와의 프랑스 리그1 8라운드에서 시즌 4호 골을 터뜨렸던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선 아직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이강인은 전반 16분 바르콜라가 왼쪽 측면에서 보낸 패스를 받아 페널티아크에서 강한 왼발 슛을 날렸으나 왈테르 베니테스 골키퍼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남겼다.

3분 뒤엔 누누 멘데스의 크로스에 뎀벨레가 발을 갖다 댄 것이 골대를 맞는 등 초반 기회를 살리지 못하던 PSG는 전반 34분 선제골을 허용했다.

전반 44분 페널티 지역 중앙 이강인의 왼발 슛이 다시 베니테스를 넘지 못하며 열세 속에 전반을 마친 PSG는 후반 10분 균형을 맞췄다.

중원에서 파비안 루이스의 패스를 받은 아슈라프 하킴이 그대로 전진해더니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기습적인 오른발 중거리 슛을 때려 골문을 흔들었다.

세르비아 츠르베나 즈베즈다에서 뛰는 국가대표 풀백 설영우는 AS 모나코(프랑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팀은 1-5로 완패했다.

/연합뉴스

김주형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 팬 앞에서 좋은 활약 보이고 싶어"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출전

김주형(22·사진)이 잠시 리더보드에서 영어 이름 '톰 김(Tom Kim)' 대신 '김주형'을 올린다.

김주형은 24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제니클러스 골프클럽 코리아(파72)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400만달러)에 출전한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가 DP월드투어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김주형이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22년 5월 GS칼텍스매경오픈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23일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형은 "오랜만에 한국 대회에 나와서 기대되는 게 많다. PGA 투어에 간 이후 국내 팬들을 보는 것은 처음인 만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김주형은 2020년 KPGA 투어에 데뷔해 두 시즌 간 2승을 쌓고 미국 무대에 진출했다. 2021년 KPGA 투어 상금, 대상, 평균타수 등 3관왕에 올랐다.

이후 김주형은 PGA 투어 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2승을 달성했고 타이틀 방어로 3승째를 누

는 등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다.

김주형은 "미국에서 치지만 늘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적인 선수인지 잘 모르겠다"고 멋쩍다는 듯 말했다.

다만 "운이 좋았던 것은 어린 나이에 PGA 투어에 가서 매년 많은 것을 배웠다. 불편한 환경에서 뛰다 보니까 성장도 빠르고 성숙해진다"고 돌아봤다.

오랜만에 만난 KPGA 투어 선배, 동료들이 칭찬 세례를 하자 김주형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김주형과 함께 PGA 투어에서 뛰는 안병훈(33)은 2018년 9월 신한동해오픈 이후 6년 1개월 만에 KPGA 무대에 섰다.

안병훈은 "코로나19가 터지고 아이도 연달아 태어나면서 놀러 오지도 못했다. 그리고 제가 좀 헤매면서 (2021-2022시즌) 콘페리 투어에 내려가다 보니까 국내 대회에 못 갔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직 PGA 투어 우승이 없는 안병훈은 올해 22개 대회에서 준우승 1차례, 3위 1차례 등 톱 10에 5번 진입하며 데뷔 후 가장 좋은 시즌을 보냈다.



안병훈은 "제가 (PGA 투어) 카드를 잃었을 때 스윙을 바꿨는데 그 스윙이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제 스윙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서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만족하면 안 된다.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 스포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자 골프 국가대항전, 2025년 한국서 열린다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고양 뉴코리아CC 10월 23~26일

여자 골프 국가대항전인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인터내셔널 크라운 조직위원회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의 뉴코리아CC에서 다음 대회가 개최된다"고 23일 발표했다.

2014년 창설된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주관하는 격년제 여자 골프 국가대항전이다.

2023년부터 한화 금융계열사 공동 브랜드인 '라이프플러스'가 후원하면서 현재 공식 명칭은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이다.

2014년과 2016년 미국에서 개최된 뒤 2018년엔 인천의 제니클러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렸고, 2020년 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뒤 재개한 지난해엔 다시 미국에서 열린 바 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인터내셔널 크라운에는 총상금 200만 달러(우승팀 상금 50만 달러)가 걸려있다.

내년 대회 참가 국가와 선수는 여자 골프 세계랭킹을 기반으로 추후 선정된다.

나흘간 열리는 대회는 1~3라운드 포볼 매치 플레이, 최종 라운드는 싱글 매치 플레이와 포스트 매치 플레이의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선 2014년 스페인, 2016년 미국, 2018년 한국이 정상에 올랐고, 지난해는 태국이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뮬 블루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